

백용성 조사 탄신 150주년 · 봉암 대희 대선사 성도 75주년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호국영령 천도대재와 국가안녕 경제부강 기원 대법회

일시 : 2014년 6월 5일 10시 / 장소 : 가야산 해인사 용담선원 / 주최 : 봉암문도회 / 주관 : 천도대재 봉행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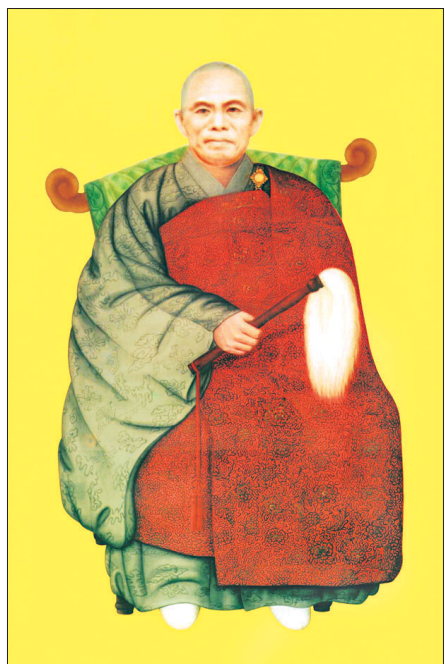


봉암문도회가 주최하고 봉행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백용성조사 강탄 150주년 및 봉암당 대희 대선사 성도 75주년을 맞이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산 용담선원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희생자 및 호국 영령을 위한 위령제와 국태민안 기원 대법회가 6월 5일 봉행되었다. 기원법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 법전(해인사 방장)스님을 비롯하여 대각교단 총재 가산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정봉스님, 세계불교 법륜종 종정 보산스님, 대한불교 총남종 종정 남산스님, 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화산스님, 호국불교 조계종 종정 해산스님, 용화교단교령 미산스님, 우리불교 조계종 종정 흥산스님, 대각불교 조계종 종정 대산스님, 해동불교 화엄종 종정 엄산스님, 봉암문도회 스님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되었다. 세월호 희생자 천도대재를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호국영령 천도대재와 국가안녕 경제부강 기원 대법회

봉행된 이날 기원 대법회는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정봉 스님의 집전으로 대령관육과 천도 다례제 봉행하고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보산 대종사의 개회사와 대한불교총남종 종정 남산 대종사의 고불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화산 대종사의 봉행사와 용담선원 선원장 중전 대선사의 환영사에 이어 법어사 흥교 대율사의 용성조사 행상 소개가 이어졌다. 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해산 대종사의 추모사와 용화교단 교령 미산 대종사의 추모사,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흥산 대종사의 기원사에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이며 해인사 방장이신 법전 대선사의 법어가 이어졌다. 법전 대선사의 법어에 이어 대각교단 총재 가산 장로의 제문헌은,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대산 대종사의 공지사향, 해동불교화엄종 종정 엄산 대종사의 폐회사를 끝으로 대법회가 성료되었다.



龍城 祖師

석가여래부촉법 75세 조선불교중흥을 5세 가야산해인사강백 조사

탄생일 : 1864년 음 5월 8일
성도일 : 1886년 음 8월 29일 (23세)
독립운동 : 1919년 양 3월 1일 (56세)
열반일 : 1940년 음 2월 24일 (77세)

용성조사 悟道頌

(응화세존 2913년 8월 29일)
洛東波萬里 낙동파만리
金鳥月千秋 금오월천추
漁舟何處去 어주하처거
依舊菴蓮花 의구속로화

용성조사 專法頌

山頭石轟轟 산두석축축
岩下水澄澄 암하수정정
讀書又睡眠 독서우수면
花枝鳥聲亂 화지조성난

용성조사 涅槃頌

(응화세존 2967년 2월 24시)
諸行無常 제행무상
萬法俱寂 만법구적
兜花穿窬 포화천리
閑臥麻田 한와마전

용성조사께서 말씀하시길
개세에게 불성이 없다 하니 조주가
망령되어 분별함이로다. 동정호 봄 물
푸르르니 앓고 나름은 흰 갈매기에 말
기노라. 용성조사께서 자신의 초상화
를 보시고 다시 말씀 하시기를 내가 너
냐? 내가 나냐? 초상에 봄날이 따사
로우니 백화 꽃이 만발하게 피었구나.

法語 :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 (해인사 방장) 법전 대선사

“일화개오엽(一化開五葉)이요, 조종지육엽(祖宗之六葉)이라는 계승처럼 근대의 용성조사는 해동의 달마요, 삼한의 육조이신지라 문손이 번성하여 처처의 육일 되어 원근상하를 밝힘이로다.

해인사 동쪽의 극락전 축발지는 광화사 예발탑에 비견되고 가야산 서쪽에 남긴 치사리탑은 불치사 보궁을 방불케 하며 박물관 인근의 대선사 행적비는 하늘을 이고서 땅을 떠받치며 수미산처럼 우뚝하시도다.

지리산 화과원은 선농일치의 보청도량으로 만세의 귀감이며 종로 대각선원은 참선 대중화의 당간을 내걸며 재가대중을 개안토록 하였고 고려대장경의 목판장식 보수와 그 후의 미타회 창립은 외호의 전범을 보이시마라 결제 때는 금강산 표훈사의 무

봉선사계 받은 무자 화두를 잠구하시고 산철에는 육조단경과 전등록 열람으로 자리를 하면서도 여가에 선문활요의 편지와 의역은 중생을 향한 이타심이라 조계의 정맥인 환성지안선사의 열반 135년 후 용성스님으로 환생하시고 그로부터 일백년에 또 반백년을 더하여 경사스런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사부대중과 호법선사들이 용약하고 제불제조께서 환희하시도다.

가야명가고정구(伽椰名價高靑丘)하니 명심도사기왕래(明心道師機往來)런가? 가야산의 명성은 청구(한국)에서 높으니 선지식들의 왕래하심이 그 얼마이던가?

원하오니 당신께서 자전(自撰)하신 무학도승(無學道頌)을 친히 읊조리면서 다시 가야산으로 나투시어 어리석은 후학들을 제접(提接)하소서.

祭文獻頌 :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장로

아문자에 아자녀야 고도벽해 포의기심

기갈기한 원천무궁 兒們自愛 我子女耶 高濤碧海 怖畏機甚 飢渴機寒 怨天無窮

“아기들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아 질푸른 바다 높은 물결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느냐 얼마나 춥고 배고팠고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하늘이 원망스러움이 끝이 없구나! 백년지상 가생백년 부모지심 유여협의 (百年之上 加生百年 父母之心 猶如嫌矣) 백년지중 미만이십 자자녀수 하기단야 (百年之中 未滿二十 慈子女壽 何基短耶) 백년 위에 백년을 더 산다고 해도 이 부모의 마음 셀다 양으로 만은 백년가운데 이십년도 채우지 못한 사랑하는 아들딸의 목숨이 어찌 이리도 짧은 말인가?

아고아고 단간부모 만루건곤 누물누보 불능전시 (我苦我苦 斷肝父母 萬淚乾坤 淚佛淚善 不能前視) 내가 내가 아프고 괴로워, 부모의 간장이 끊어지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부처도 울고 보살도 울어 앞을 볼 수가 없구나.

니문부모 기운기의 애민애국 용성봉암 양대조사 냉불애제 (你們父母 既云己宜 愛民愛國 龍城鳳菴 兩大祖師 寧不哀哉) 너희들 부모는 마땅히 그러 하거니와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시던 영성봉암 두분조사가 차라리 애달파 하지 않겠느냐.

연이 아문자에 아자녀야 안심불의 양대조사 자비무량 (然以 兒們慈愛 我子女耶 安心不畏 兩大祖師 慈悲無量) 인로극락 금차산승 양대조사 의지법력 초탈삼계 적하극락 (引路極樂 今此山僧 兩大祖師 依止法力 超脫三界 擲下極樂) 그러나, 아기들이 사랑하는 아들딸아 안심하고 두려워말아라.

양대조사 냉불애제 (你們父母 既云己宜 愛民愛國 龍城鳳菴 兩大祖師 寧不哀哉)

너희들 부모는 마땅히 그러 하거니와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시던 영성봉암 두분조사가 차라리 애달파 하지 않겠느냐.

연이 아문자에 아자녀야 안심불의 양대조사 자비무량 (然以 兒們慈愛 我子女耶 安心不畏 兩大祖師 慈悲無量)

인로극락 금차산승 양대조사 의지법력 초탈삼계 적하극락 (引路極樂 今此山僧 兩大祖師 依止法力 超脫三界 擲下極樂)

그러나, 아기들이 사랑하는 아들딸아 안심하고 두려워말아라.

두분 조사께서는 자비가 무량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리니 지금 이제 산승이 두분 조사의 법력에 의지하여 삼계를 뛰어넘어 극락으로 보내노니 제위열위 열명영가여! 환견마! 환문마! 회득마! 악!(諸位列位 烈名靈駕여! 還見麼! 還聞麼! 會得麼! 楞!) 제위열위 열명영가여! 보았는가! 들었는가! 알았는가! 악!



봉암당 대희개사 수법성좌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장로

사단법인 산지약음식물협회(회장 백성기)로 부터 선양산삼 330만주를 기증받아 300뿌리를 해인사 선원과 강원 수좌스님들에게 공양하고 200뿌리는 참가하신 스님들께 공양하였으며 해인사 신도회장이었던 봉암 대선사의 마을상좌 고 장재학 거사가 소장하시던 조계종 초대 종정 하동산 대종사가 선술하고 3.1독립운동 33인중 한분이시던 당대 명필이신 오세창 선생이 제목을 쓰신 용성조사 법어록 등 많은 희귀본의 불교서적을 봉암 대선사의 은.법.강.을.이.은 상좌 석가산스님이 기증 받았다.



산지약음식물협회(회장 백성기)로 부터 선양산삼 330만주를 기증받아 300뿌리를 해인사 선원과 강원 수좌스님들에게 공양하고 200뿌리는 참가하신 스님들께 공양하였으며 해인사 신도회장이었던 봉암 대선사의 마을상좌 고 장재학 거사가 소장하시던 조계종 초대 종정 하동산 대종사가 선술하고 3.1독립운동 33인중 한분이시던 당대 명필이신 오세창 선생이 제목을 쓰신 용성조사 법어록 등 많은 희귀본의 불교서적을 봉암 대선사의 은.법.강.을.이.은 상좌 석가산스님이 기증 받았다.

鳳庵 祖師

기미 11.3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용성조사의 은.법.강.을.이.어.반.아 석가여래부촉법 76세 조선불교중흥을 6세 가야산해인사강백 2세

봉암 조사 悟道頌

(응화세존 2966년 5월 8일)
眞如法界 진여법계
自他不二 자타불이
萬法一如 만법일여
何勞是非 하로시비

봉암 조사 專法頌

釋迦本無法 석가본무법
迦葉何曾傳 가섭하증전
山登君爲峯 산등군위봉
庵前翠竹重 암전취죽중

봉암 조사 涅槃頌

(응화복전 3002년 1월 3일)
釋迦本無法 석가본무법
我亦無所得 아역무소득
還地本面目 환지본면목
雲水自去來 운수자거래

탄생일 : 1909년 음 10월 1일
광주학생운동 : 1929년 양 11월 3일
성도일 : 1939년 음 5월 8일
열반일 : 1975년 음 1월 3일 (67세)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 (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 전사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s.co.kr /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우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